

油價引下の 期待効果와 対応方向

韓國開發研究院

I. 油價引下の 展望

國別 公示價 引下幅¹⁾ (1982)

(달러/배럴)

1. 國際原油市場의 最近動向

가. 價格動向

-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를 除外한 모든 OPEC 會員國들 公示價 引下

國名	引下幅	國名	引下幅
이 란	3.00	나이지리아	1.00~1.50
U A E	0.74~0.97	인도네시아	0.47~1.90
알 제 리	1.50	베네수엘라	2.50
리 비 아	1.25~1.60	에콰도르	1.15

1) 1982. 1. 1과 1983. 1. 1期間中 引下幅

나. 價格下落要因

- 주요 消費國 및 非産油開途國의 石油消費 감소 지속

- 世界經濟回復의 지연에 따른 産業用 수요 감소
- 世界的인 暖冬에 의한 重質暖房油 소비 감소
- 石油依存度 減소를 위한 에너지節約 및 脫石油化 政策의 추진

- 非 OPEC의 産油量 增加로 OPEC의 市場 支配力 弱화

- 非 OPEC産油量은 1981年11月의 18.92百万b/d에서 1982年 11月의 20.36百万b/d로 7.6% 증가.
- 共產圈의 石油純輸出量이 1981년에 비해 26% 증가.
- OPEC産油量은 1983年 1月中 16.8~17.35百万 b/d程度로 감소, 특히 OPEC 中 사우디의 産油量은 4.2~4.5百万 b/d 로 감소하여 支配力이 약화되고 있음.

- 油價引下에 대한 期待로 備蓄需要 감퇴

1月23日 會議失敗後 現物原油價 下落

(달러/배럴)

油 種	會 議 前	會 議 後	差 異
Brent Crude(北海)	31.75~32.05	29.0~29.5	2.55~2.75
Arabian Light	31.25~31.50	29.50~29.75	1.75
Brega(리비아)	31.35	29.80	1.55
American Crude	-	-	1.50~2.00

最近 世界 産油量

(百万b/d)

	1982. 1~11月(1982. 10-11月)	1983. 1月(推定)
O P E C	18.4	19.2
中 東	11.8	11.4
(사우디)	(6.4)	(5.5)
其 他	6.6	7.9
非OPEC	19.8	20.4
美 國	8.7	8.7
北 海	2.7	2.8
멕시코	2.7	2.9
天然 가스	3.2	3.2
自由世界計	41.4	42.7
其 他	14.4	14.5
世界總計	55.7	57.1

2. 原油價의 短期展望에 대한 세가지 시나리오.

가. 現基準價 \$ 34/b의 維持

- OPEC가 健在하고 있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OPEC 産油國이 모두 바라고 있음.
- 實例로 1983年 1月 제네바 會議에서 現基準價의 維持가 합의되었으나, 價格構造에 대한 사우디의 反對때문에 회의가 결렬되었음.
- 基準價의 引下(일방적 引下이건 협상에 의한 引下이건)는 OPEC 會員國間 價格競爭을 초래하여 OPEC의 存立自体를 威脅할지도 모른다고 産油國들은 생각하고 있음.
- 原油去來는 分期別로 價格檢討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2月末이나 3月初에 또 한번의 OPEC 會議가 열릴 可能性이 있으며, 이때에 生産量의 全体上限을 제네바 會議에서 제시되었던 17.5百萬b/d보다 약간 낮게 策定하면서 現基準價 \$ 34의 유지에 합의할 可能性이 있음.

나. 基準價 \$ 30/b水準으로 引下

- 사우디 原油價가 나이지리아 原油에 比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사우디는 主張함.
- 現在 價格差異는 \$ 1.50/b인데, 이것이 \$ 3.50/b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우디의 主張임.
- 따라서 사우디는 지난번 제네바會議에서 自國의 原油價를 \$2/b내리거나, 아니면 나이지리아의 原油價가 그만큼 올라가야 한다고 제의하였으며, 이것은 즉각 나이지리아에 의해서 拒否되었음.
- 만약 사우디와 나이지리아가 새로운 價格構造에 合意할 수 있다면, 우선 나이지리아의 原油價가 北海産 原油와 경쟁하기 위해 \$3/b程度 引下될 것이며 (北海産 原油의 現物價格과 비슷한 水準으로), 이 하락된 線에서 最高 \$3.5/b을 뺀 가격이 사우디의 新基準價가 될 것임.
- 이것은 \$29/b을 의미하나, 價格差異가 \$

3.50/b에 못 미치는 線에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新基準價는 \$29/b~\$30/b線이 될 것임.

- 이 '시나리오'의 關鍵은 사우디와 나이지리아가 이러한 價格構造에 合意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사우디의 提議를 나이지리아는 이미 拒否한 바 있으므로, 前者가 다시 이러한 提議를 할 경우 나이지리아는 應諾에 대한 條件으로 報償(長期借款等)을 要求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우디가 받아들일 때 基準價 引下는 가능해 짐.

다. 基準價 \$ 25/b水準으로 引下

- 사우디가 價格을 一方으로 引下하고, 他 産油國 특히 외란 나이지리아등이 競爭적으로 引下하여 價格이 폭락함.
- OPEC의 存立은 물론 中東의 安定에도 큰 問題가 生길 수 있으므로 사우디등 OPEC 核心그룹의 利益과도 相衝됨.
- 이란, 나이지리아등은 사우디의 이러한 制約點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사우디 原油와 價格競爭을 벌일 態勢가 되어 있음.

라. 結論

- (가) 現基準價 維持 및 (나) 30 \$水準으로의 引下 시나리오는 兩者 모두 實現可能性이 높음.
- 사우디와 나이지리아가 새로운 價格構造에 상당히 意見接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現原油市場의 需給與件을 고려할 때, 30달러水準으로 油價引下 可能性이 現油價 維持 시나리오보다 다소 크다고 볼 수 있음.
- (다) 25달러水準으로의 油價引下 시나리오 可能性은 희박함.

3. 原油價의 長期展望

- 實質原油價가 持續적으로 下落한다고 보는 見解
- 두번에 걸친 原油價의 상승으로 石油消費

国, 특히 先進国의 經濟構造가 에너지節約型으로 변모되고 있어서, 石油需要의 장기적 둔화가 예상된다.

先進国의 原油輸入

(億달러)

- 供給面에서, 價格上昇의 결과 非 OPEC에서 産油基盤이 확충되어서 OPEC市場은 더욱 축소되리라 예상된다.

- 實質原油價가 上昇한다고 보는 見解

- 先進国의 石油需要는 둔화되나, 開途国, OPEC 自体에서의 石油需要는 증가되리라 예상되므로 全体的으로 需要의 예상되지 않음.

- 石油代替 에너지의 開發이 遲延되고 있음.

i) 油價의 弱화 現象이 다소 長期化될 조짐이 보이자 美国에서 合成燃料 프로젝트가 거의 취소되었음.

ii) 環境問題에 대한 論難 때문에 有煙炭發電所, 産業用 石炭보일러에 대한 투자가 遲延되고 있음.

iii) 反核무드의 膨滿으로 核發電所의 建設이 대폭적으로 취소되고 있음.

- 中東에서의 政治的 狀況은 장기적으로 결코 樂觀的이 아님. OPEC는 이러한 條件을 經濟的 利益의 圖謀를 위해 活用코자 할 것임.

- 結論적으로 볼 때, 장기적 油價引上 見解가 보다 타당함.

	總商品輸入 (A)		原油輸入 (B)		原油輸入比重 (B/A, %)	
	81	82	81	82	81	82
美国	2,734	2,553	785	601	28.7	23.6
日本	1,427	1,322	587	510	41.1	38.6
西 独	1,633	1,622	318	288	19.5	17.7
프랑스	1,205	1,222	242	210	20.0	17.2
英国 ¹⁾	1,040	966	-130	-71	-12.5	-7.3

(註) ¹⁾英國의 경우는 總商品 輸出 對比 原油輸出額

의 輸入負擔도 현저히 감소.

- 이들 國家의 國際收支 改善으로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借入需要縮小.

나. 原油輸出國의 石油收入 減少

- OPEC, 그 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公示價를 引下하지 않았던 國家들의 石油收入 減少가 클 것임.

- 사우디의 油價가 배럴당 30달러 水準으로 4달러 引下될 때 OPEC 國家中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北아프리카産 原油價는 약 1.5달러 밖에 引下되지 않고 現物市場價格도 4달러未滿 下落할 것으로 보여 OPEC의 加重平均原油價는 약 10% 하락할 展望.

- 또한 30달러로 油價引下時 어느 정도 産油量이 증가할 것을 감안할 때 OPEC의 石油收入減少는 150~200億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油價가 배럴당 25달러로 인하될 때, OPEC 加重平均 油價가 8달러 하락한다고 하고, 이 경우 産油量이 최대한 1,900万 b/d까지 증가 한다고 가정하면 石油收入減少는 400~500億달러로 추정됨.

- 이에 따라 石油輸出國들의 의욕적인 開發計劃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産油國들 中에서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과 같이 石油資源 開發을 위해 海外借入을 크게 늘려 온 國家들의 어려움 加重 豫想

- 멕시코는 82년에 外換不足으로 國際金融市場으로 부터 89億달러의 日괄 資金支援

II. 油價引下가 世界經濟에 미치는 影響

1. 原油輪出入 規模의 变化

가. 原油輸入國의 負擔輕減

- 英國, 노르웨이 등 原油輸出國을 제외한 대부분 先進國의 國際收支 改善.

- 原油輸入의 絶對規模와 總貿易額에 대한 原油比重이 높은 美国, 日本의 國際收支 改善效果가 상대적으로 큼.

- 브라질, 칠레, 韓國, 台灣, 필리핀, 인도, 터키 등 原油輸入負擔이 큰 非産油開途國

을 받았으나, 油價下落時 추가적인 援助 不可避.

- 지난 2年間 石油收入이 半減된 나이지리아는 강력한 輸入規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石油輸出이 總商品輸出의 2/3 이상을 占하고 外債殘額이 280億달러에 달하는 베네수엘라도 油價引下時 外債償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 綜合: 油價引下로 인한 世界國際收支 變化

- 82년에 石油輸出國의 經常收支 赤字가 거의 소멸된 반면, 先進國은 81년부터 收支均衡을, 非產油 開途國은 꾸준한 赤字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음.
- 非產油 開途國의 經常收支 改善은 82年中 약 670億달러에 달한 石油輸入 및 650億 달러의 外債利子支給이 油價安定 및 金利의 하락으로 安定勢를 보이고 있는데 起因함.
- 油價가 배럴당 30달러 및 25달러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에는 OPEC를 포함한 石油輸出國의 經常收支 惡化는 각각 200~250億 달러 및 500~600億달러로 추정됨.
- 이 중 약 3분의 2가 先進國의 經常收支 改善으로, 나머지 3분의 1이 非產油 開途國의 經常收支 改善으로 나타날 것임.
- 즉 油價가 30달러로 인하될 경우, 先進國은 年間 150億달러, 非產油開途國은 75億달러의 經常收支 改善이 기대됨.
- 油價가 25달러로 인하될 경우에는 先進國은 年間 360億달러, 非產油 開途國은 180

그룹別 經常收支 推移와 展望

(億달러)

	80	81	82	83展望	油價引下에 따른 影響	
					\$30/b	\$25/b
先進國	- 406	- 10	- 40	- 100	+ 150	+ 360
開途國						
石油輸出國	1, 143	650	10	30	- 225	- 540
非產油國	- 889	- 1, 033	- 900	- 700	+ 75	+ 180
(石油輸入)	(630)	(670)	(670)	(700)		

(資料) 実績 및 83年 展望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 1983

億달러 정도의 經常收支 改善이 期待됨.

2. 世界經濟의 成長과 인플레이

- 油價引下는 다음과 같은 經路를 통해 世界經濟의 回復에 寄与
- 先進國 消費者의 實質購買力 增加: 油價引下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油類消費支出費用을 節減하고, 간접적으로는 전반적인 인플레이 하락으로 實質購買力 增加 (美國의 경우 油價의 30달러 수준에로의 인하는 家計所得 약 220億달러의 增加效果)
- 誘發的인 投資 및 國際交易量의 증가: 民間消費支出이 증가하여 設備稼動率이 상승하고 景氣回復展望이 밝아짐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輸入需要 增加.
- 이러한 경기회복과정에서 先進國의 經濟政策은 成長促進의인 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第2次 石油波動 이후 先進國의 緊縮努力에 힘입어 인플레이가 상당히 鎮靜되어가고 있으며, 油價引下로 인플레이는 더욱 鈍化될 것이므로 緊縮基調는 상당히 후퇴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產油國의 借入增加등에 따라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로 國際金利가 다소 상승할 지 모르나, 결국은 인플레이의 하락, 비교적 여유있는 通貨政策基調에 힘입어 美國등 先進國의 金利는 하락이 예상된다.
- 따라서 消費者金融 需要擴大, 企業의 投資資金 코스트하락, 企業利潤 및 資金事情의 호전 등에 힘입어 소비 및 投資回復의 与件造成.
- 油價가 30달러水準(사우디公示價基準)으로 하락할 경우의 限界期待 效果.
- 向後 1年間의 先進國 GNP成長 약 0.5% 增加.
- 先進國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이 2년에 걸쳐 1.0~1.5% 하락.

- 世界交易量 增加 약 1%, 非産油 開途國의 輸出은 약 1.5~2.0%水準 增加.

3. 國際金融市場 借入与件의 變化

가. 最近 資金需給構造의 特徵

- 國際金融市場은 1970年代에 年 20% 以上 伸張
 - 2 次에 걸친 油價引上으로 생긴 막대한 오일·달러의 國際金融市場에로의 유입.
 - 國際金融市場에서는 諸 金融規制를 避할 수 있어서 銀行에 高收益 保障.
 - 國際機構를 통한 公共借入의 限界에 따른 商業銀行借入增加 및 신디케이트·론, 變動金利條件 등 새로운 貸出技法의 개발.
- 그러나 1981년부터 國際金融市場에서의 新規貸出 增加鈍化
 - 81년의 新規貸出은 1,650億달러로 80년의 1,600億달러와 거의 비슷.
 - 82년에는 前年보다 오히려 約 15% 減少

된 것으로 추정됨.

- 最近 國際金融市場 需給構造의 變化

- 81년에는 第2次 油價引上 以後의 産油國 오일달러 還流 終息.
 - 産油國의 新規預金은 80년의 416億달러에서 81년에는 32億달러로 감소.
 - 그러나 産油國 新規預金の 감소는 先進國의 預金增加로 補完되어 非産油開途國의 借入은 큰 감소가 없었음.
- 82년에는 國際金融市場 事情이 크게 악화되었음.
 - OPEC는 82年 1/4~3/4分期中 181億달러의 純借入國으로 轉落(預金引出 104億달러, 新規借入 77億달러)
 - 한편 先進國도 81년의 경우와는 달리 新規預金の 增加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非産油開途國은 借入与件이 매우 梗塞되었으며, 3/4分期에는 償還額이 新規借入을 上廻하였음.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借入 및 預金動向¹⁾
(億달러)

	1980	1981		1982	
		年 間	1/4-3/4	1/4-3/4	9月末 殘 額
借入					
先進國 ²⁾	1,030	1,077	757	484	5,848
(域外金融센터)	(329)	(503)	(390)	(348)	(2,697)
東歐共產國	70	48	40	-42	521
O P E C	71	43	15	77	772
非OPEC開途國	392	416	235	145	2,401
(中 南 美)	(284)	(326)	(185)	(128)	(1,692)
純借入=純預金合計 ³⁾	1,600	1,650	1,100	750	9,850
預金					
先進國 ²⁾	1,068	1,407	999	771	6,923
(域外金融센터)	(272)	(553)	(357)	(266)	(2,438)
東歐共產圈	8	1	-36	-18	122
O P E C	416	32	60	-104	1,401
非OPEC開途國	41	104	13	20	982
(中 南 美)	(3)	(65)	(60)	(-21)	(369)

(註) 1) 國際決済銀行(BIS)報告銀行의 貸出 및 預金
 2) 그룹間 二重計算은 모두 先進國去來에서 差減
 3) 分類不明을 포함하고 二重計算을 差減
 <資料> BIS, Annual Report(1981, 1982), International Banking Development(1982. 3/4)

나. 開發途上國 借入与件의 變化

- 外債負擔이 큰 일부 開發途上國의 支給不能事態와 20余個國 外債의 償還條件 再調整
 - 그간 과도한 外債累増과 高金利로 償還負擔 증가.
 - 世界景氣의 沈滯에 따른 國際原資材의 가격하락으로 原資材 輸出開發途上國의 外貨收入 激減.
- 最近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支給不能危機以後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資金供給이 크게 萎縮됨.
 - 商業銀行, 특히 美國 群小銀行들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貸出忌避 혹은 選別 強化 및 銀行間 資金貸借의 萎縮.
 - 先進國 金融當局의 直·間接的인 自國銀行 海外貸出抑制 및 전반적인 國際金融市場 規制論 대두.
- 그 反面 産油國의 國際收支惡化 및 非産油 開發途上國의 지속적인 資金需要로 인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加算金利(spread) 上昇 및 借入國別 差異擴大, 償還期間 短縮 등 借入与件 惡化趨勢.

다. 油價引下에 따른 國際金融市場의 不安要因

- 産油國 國際收支가 더욱 악화됨에 따른 新規借入需要 및 預金引出 증가에 대비할 貸出資金을 先進國의 資金供給擴大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與否
 - 油價가 배럴당 30달러 및 25달러로 인하될 경우의 石油輸出國 經常收支惡化는 각각 200~250億달러 및 500~600億달러 水準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중 約 3분의1은 非産油 開途國의 國際收支 好轉으로 인한 借入需要 감소로 나타날 것임.
 - 한편 油價引下로 先進國의 景氣回復이 加速化되게 되면, 先進國 預金이 증가되는 한편, 開途國의 1次商品 및 新興工業國들의 工業品輸出이 증가됨에 따라 借入所要도 축소될 것임.
 - 따라서 油價引下에 따라 世界景氣의 回復이 예상대로 실현되지만 한다면, 國際金融市場의 심각한 資金不足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미 過度한 外債償還負擔을 안고 있는 멕시코, 나이지리아등 産油開途國들의 石油收入 감소로 이들 國家의 外債償還 不能招來 可能性과 이로 인한 連鎖的인 國際金融市場 破局 危險.
 - 國際金融面의 國家間의 相互依存性 增大, 특히 멕시코등 借入國에서의 美國 등 先進國의 利害關係, 그리고 過去에 비슷한 危機에 처했을 때 그 打開을 위해 발휘되었던 리더쉽등을 감안할 때, 先進國들은 國際金融危機 回避를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실제로 IMF의 쿼터 47% 增額決定, 一般借入協定(GAB)의 增額 및 參加範圍 擴大 등 國際金融危機 防止를 위한 제도적 裝置 등이 모색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油價가 인하된다 해도 國際金融市場의 심각한 資金梗塞, 支給不能 事態로 인한 西方銀行의 連鎖的 破産 등과 같은 金融危險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外債負擔이 큰 일부 國家들은 IMF

등 國際金融機關의 資金支援에 附帶될 經濟運用의 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며, 余他 開途國들의 借入條件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非産油開途國의 對外債務

(億달러)

	1978	1980	1982	83展望 ¹⁾
對外債務總額	3,405	4,648	5,990	6,479
長期債務	2,910	3,871	5,064	5,639
(公共貸出)	(1,173)	(1,525)	(1,949)	(2,189)
(民間貸出)	(1,736)	(2,346)	(3,115)	(3,451)
外債/GDP(%)	28.9	27.1	33.9	33.9
外債/輸出(%)	131.5	111.2	138.4	137.5
元利金償還	506	769	1,084	1,105
(利子)	(195)	(406)	(583)	(548)
(元金)	(311)	(363)	(501)	(558)
元利金償還負擔率(%)	19.1	17.8	23.8	22.3

〈註〉1) 油價引下 展望이 反映되지 않은 予測임.

〈資料〉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 1983

4. 油價下落과 國際金利 및 主要國 換率

가. 國際金利

- 油價引下 予想이 있기 이전의 國際金利展望은, 82年 7月 以後 急落한 金利가 83年中에도 1~1.5%포인트 緩慢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았음.
 - 先進諸國의 인플레이 鎮靜으로 인플레이 心理 점차 後退
 - 景氣回復이 매우 緩慢함에 따라 民間 資金需要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
 - 2,000億달러를 上廻할 것으로 予想되는 美國 財政赤字의 資金市場壓迫 憂慮가 있기는 하나, 景氣回復을 겨냥하여 通貨緊縮基調가 後退함에 따른 流動性 事情 호전.
- 油價引下는 이러한 既存의 金利展望에 하락 및 上昇要因을 동시에 갖고 있음. 金利의 追加的인 下落要因은 油價引下에 따라 인

플레가 더욱 鎮靜되는 데 기인함.

- 인플레이 下落分의 約 60%가 金利下落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油價가 배럴당 30 달러 및 25달러로 引下되면, 金利의 下落要因은 約 0.7%포인트 및 1.5%포인트로 추정됨.

- 그러나 油價引下는 단기적으로 金利上昇要因도 함께 갖고 있음.

-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需給構造 變化와 不確實性的의 增大
- 景氣回復이 가속화됨에 따라 消費者 및 企業의 資金需要가 예상보다 빨리 증가.

- 이렇게 볼 때, 油價引下の 國際金利에 대한 影響은 約 6個月間은 거의 微微하거나, 오히려 약간 上昇要因으로 작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國際金融市場이 새로운 秩序를 찾음에 따라 다소 下落要因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油價引下로 産油國의 國際收支가 악화되어 借入需要가 증가함에 따라 開途國 貸出에 대한 加算金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임.

나. 主要國의 換率

- 油價引下予想 以前の 換率展望은 美달러가 83年中 円貨나 西獨 마르크등 其他 主要通貨에 대해 平均 約 10% 약세가 될 것으로 보았음.

- 82年 10月 以前까지의 美달러의 高評價로 美國 輸出의 對外競爭力이 약화되어 國際收支 惡化(經常收支赤字: 82年, 88億달러 → 83年, 200~250億달러로 展望)
- 美國 政府의 景氣回復努力과 인플레이 鎮靜에 힘입어 美國金利가 당분간 緩慢 하게 하락하리라는 전망.
- 美國의 高金利 및 國際情勢不安이 상당히 解消됨에 따라 美國에로의 資本流入 減少 예상

- 油價下落으로 인한 主要國의 換率展望에 일반적으로 考慮되어야 할 要因들

- 産油國의 國際收支惡化 → 英國 파운드 의 弱 化

- 原油輸入 依存이 상대적으로 큰 國家의 國際收支 改善이 큼 → 日本 円貨 및 西獨 마르크貨 強勢.

- 國際金融市場의 危機 및 國際金融 秩序의 崩壞憂慮 → 美 달러 強勢

- 美달러는 油價引下 予想以前の 전망보다는 다소의 強勢를 보여 83年中 SDR基準 3~4 %의 약세를 보일 전망.

- 油價下落으로 인한 美國의 國際收支改善 및 國際金融秩序의 崩壞憂慮에 따라 安全 通貨로서의 달러 수요 증대

- 그러나 日本 및 西獨은 油價引下로 인한 通貨強勢 효과가 美달러의 경우보다 다소 커서 83年中 달러에 대해 約 10%의 強勢予想

- 큰 폭의 經常收支改善(日本의 原油輸入 比重 約 39%)

- 油價引下에 따른 美金金利의 추가적 하락으로 金利融差가 축소되어 資本의 海外流出 減少.

- 한편 英國 파운드貨는 英國 輸出에서 約 7%를 占하는 北海産 原油輸入의 감소를 반영하여 83年中 美달러 對比 約 3%의 強勢에 그칠 전망임.

主要國의 換率展望

(美 1 달러당 換率)

	81年末	82年末	1983		
			1月末	6月末	12月末
日本 円	215.7	234.2	244.0	232.9	213.2
西獨 마르크	2.223	2.382	2.518	2.321	2.120
英國 파운드	0.523	0.617	0.677	0.658	0.599
프랑스 프랑	5.734	6.733	7.192	7.284	6.808

(註) 油價의 배럴당 30달러 水準으로의 引下가 反映된 展望임.

Ⅲ. 油價引下の 國內經濟影響

1. 中東建設 및 商品輸出 展望

가. 現況

- 韓國의 海外建設 受注額은 지난 數年間 급격히 증가

□ 資 料 □

- 新規受注額 : 80年 83億달러 → 81年 137億달러 : 82年 134億달러
- 82年末의 受注殘額 : 235億달러
- 海外建設에 따른 外貨入金額 : 81年 21.7億달러 → 82年 24.5億달러 (GNP의 약 3.7%)
- 總受注額中 中東이 절대적인 位置를 占하고 있음.
 - 中東占有率이 79~81年 平均 93%를 上廻, 82년에는 對 東南亞 受注의 높은 증가로 85%로 하락.
 - 中東國家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및 리비아 3個國의 比重이 中東 全体 受注額의 90%를 상회.
- 中東에 대한 建設輸出과 더불어 建設關聯 商品을 중심으로 商品輸出도 꾸준히 증가하여 80~81년에는 總商品輸出中 中東市場比重이 10~11% 水準을 占하였으나, 82년에는 8.8%로 하락.
- 82년에는 中東으로부터의 建設受注가 약 10%, 對中東商品輸出이 15%정도 감소하였음.
 - OPEC의 石油減産 및 原油價下落으로 인해 財政難이 심화됨에 따라 經濟開發 計劃 縮小 不可避.
 - 82年の 建設受注 및 中東商品輸出의 감소는 주로 리비아와 이라크의 事情 惡化에 기인함.

나. 短期展望

(1) 原油生産量 展望

- OPEC의 國別 原油生産量은 國別生産能力,

OPEC主要國別 原油生産 展望

(萬배럴/日)

	生産量 推移		生産能力 (82年末)	잠정쿼터 (83.1月)	83年展望
	82.1月	82.11月			
사우디	850	540	1,100	455	480
이란	110	260	250	250	260
이라크	130	80	150	125	110
리비아	80	170	200	120	140
쿠웨이트	70	70	250	110	110
OPEC合計	2,077	1,932	3,119	1,750	1,800

OPEC內의 主導權(주로 사우디와 이란間), 國別 財政壓迫의 정도, 油質差의 고려등에 따라 결정됨.

- 最近의 原油生産量 推移와 지난 1월에 잠정 合意되었던 쿼터등을 고려할때, 사우디 基準油價가 30달러를 維持한다는 前提下에서 83年の 生産量은 다음과 같이 전망됨.
- 原油輸入國의 關稅賦課 与否등 에너지政策, 産油國間 價格引下 競争의 樣相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① 사우디의 公示價 34달러 維持를 위해서는 OPEC의 生産量을 1,700~1,750萬b/d로, ② 25달러로 인하할 경우는 1,900萬b/d 水準의 生産量이 예상됨.

(2) 國別 建設受注 展望

<사우디아라비아>

- 83年の 原油收入은 油價를 現水準에서 유지할 경우 約 25%, 30달러 水準으로 인하할 경우 約 30% 減少할 展望임.
 - 25달러로 인하될 경우는 35~40%의 原油收入減少 豫상.
- 따라서 950億달러에 이를 82年 財政運用에 차질이 예상되나, 原油收入에 比例한 豫算의 大폭적 縮小나 급격한 建設發注額의 감소는 없을 것임.
 - 石油化學製品과 非石油 商品輸出 約 50億 달러로 豫想
 - 82年末 現在 約 1,600億달러에 달하는 外貨資産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投資收益도 年間 100億달러를 上廻.
 - 世界景氣의 본격적인 回復등으로 85年頃 부터는 原油市場도 好轉될 것으로 전망.
- 83年 韓國의 對사우디 建設受注는 82年の 83億달러에서 油價引下가 없는 경우 約 70億 달러, 25~30億달러로 油價가 인하되는 경우 60~66億달러 水準으로 감소가 예상됨.
 - 사우디의 第3次 開發計劃期間中 推進될 工事의 상당분이 그 1,2次年度인 81~82年에 이미 發注되어 83年 發注量의 감소 불가피.
 - 近年의 사우디 建設工事中에 單純 土木工

事の比重이 떨어지면서 總發注量中 韓國의 受注比率 下落.

海外建設 外貨入金額

(億달러)

(이라크)

- 3年째 계속되는 처이란戰으로 石油生産施設이 파괴되었고, 하루 50万 배럴의 輸送이 가능한 送油管을 시리아에 차단 당함으로써 石油生産이 크게 감소.
- 戰費調達을 위해 사우디, 쿠웨이트 등으로 부터 이미 300億달러 정도의 援助를 받았으나, 이들 國家의 財政惡化로 83年엔 援助가 대폭 削減될 전망임.
- 82年 2월에 320億달러에 달하던 外換保有額이 年末에는 100億달러 水準으로 減少됨에 따라 既存 工事代金の 支給이 지연되는 일이 많으며, 新規工事도 그 規模가 크게 줄고 供給者 信用이나 延拂條件이 아니고서는 受注가 어려울 전망임.
- 韓國의 이라크로부터의 建設受注: 81年 19.5億달러 → 82年 15億달러로 감소.

	1981	1982	1983年 展望		
			\$34/b	\$30/b	\$25/b
總施工対象額	279	329	335	325	318
前年末契約殘額	142	195	235	235	235
新 規 受 注	137	134	100	90	83
工事代金受取	84	94	96	91	86
(施工対象額对比, %)	(30.1)	(28.7)	(28.7)	(28.0)	(27.0)
外貨入金額	21.7	24.5	25.0	23.2	21.0
(施工対象額对比, %)	(7.8)	(7.5)	(7.5)	(7.1)	(6.6)

정임.

- 83年에도 계속적인 財政難으로 建設工事의 新規發注가 크게 감소하고, 代金支給條件이 惡化되어 韓國의 新規 受注도 크게 萎縮될 전망임.
- 처 리비아 建設受注 및 商品論出: 81年 각각 24.7億달러 5.9億달러 → 82年 10.6億달러, 1.7億달러로 急減.

(리비아)

- 82年 美國의 처리비아 禁輸措置 및 石油資本의 철수로 石油收入이 감소하여 현재 推進中인 第6次 5個年計劃의 財源調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82年初 330億달러를 上廻하던 外換保有額이 年末에는 60億달러로 대폭 감소하여 大規模工事의 發注를 중단하고, 既成高에 대한 代金の 一部를 原油로 支給하고 있는 실

(3) 綜合的인 建設受注 및 外資入金 展望

- 83年의 總建設受注額은 油價引下가 없는 경우 100億달러, \$ 30/b로 油價가 인하되는 경우 90億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와 리비아로부터는 新規受注가 크게 축소되어 0~5億 달러에 不過.
- 東南亞를 中心으로 한 非中東地域으로부터의 受注는 82年과 같은 20億달러 水準 豫想.
- 油價가 25달러 水準으로 인하될 경우의 83年 建設受注는 약 83億달러 전망.
- 總 施工対象額에 대한 外貨入金額의 比率 下落豫想
- 契約額에 대한 先受金 比率이 81年까지의 평균 20%에서 82년에는 10%로 인하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低下할 可能性이 있음.
- 工事期間의 延長要請, 既成高 代金支給지연, 工事代金の 現物支給 事例가 증가할 전망.
- 不實 및 不振工事を 구실로 クレ임이 증가할 素地가 있음.

海外建設 新規受注

(億달러)

	1980	1981	1982	1983年 展望		
				\$34/b	\$30/b	\$25/b
合 計	83	137	134	100	90	83
中 東	78	127	114	80	70	63
(構成比, %)	(95)	(93)	(85)	(80)	(78)	(76)
主要 3 国	70	122	109	75	66	60
(사우디)	52	78	83	70	66	60
(이라크)	4	19	15	5	0	0
(리비아)	14	25	11			
東南亞等其他	6	10	20	20	20	20

- 83年 海外建設輸出 外貨入金額は 油価引下が 없을 경우 25億 달러, 25~30 달러로의 油価引下 경우에는 21.0~23.2億달러로 예상된다.

- 이것은 油価引下が 없을 경우 外貨入金額/總施工対象額 比率이 82年과 같은 7.5%, 油価引下の 경우에는 6.6~7.1%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함.

(4) 対中東 商品輸出 展望

- 中東商品輸出의 70~80%가 建設輸出과 관련한 鉄鋼材, 시멘트 등 建設資材인 것을 감안할 때 対中東 商品輸出은 中東의 建設施工対象額과 關係가 큼.

- 그러나 82年の 경우처럼 中東國家의 外換事情이 惡化될 경우에는 建設施工対象額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対中東商品輸出 감소.

- 対中東 商品輸出: 81年 22.5億달러→82年 19億달러로 감소.

- 中東으로부터의 建設受注殘額, 新規受注展望, 이들 國家의 石油收入 展望등을 감안할 때 83年の 対中東 商品輸出은 油価引下が 없을 경우 82年과 같은 19億달러, 25~30 달러로 油価引下時에는 16.0~17.8億달러로 감소가 예상된다.

対中東 商品輸出 (通関基準, 億달러)

	1980	1981	1982	1983年 展望		
				\$34/b	\$30/b	\$25/b
總商品輸出	175	210	216	240	242	244
対中東輸出	18.2	22.5	19.0	19.0	17.8	16.0
(構成比, %)	(10.4)	(10.7)	(8.8)	(7.9)	(7.4)	(6.6)
主要3国 ¹⁾	11.5	17.4	13.1	13.5	12.6	11.5
(사우디아라비아)	9.5	11.4	11.2	12.2	11.7	10.9

〈註〉¹⁾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2. 油価引下の 国内經濟 綜合期待 効果 (油価 30 달러의 경우)

가. 原油輸出入負擔輕減

- 사우디 基準油価가 30 달러로 하락하는 경우 年間 輸入負擔 輕減은 약 6.5億달러로 예상

- i) 사우디, 쿠웨이트의 油価가 4 달러 引下되

더라도 其他 國家의 原油価는 이보다 小 幅引下될 것으로 보여 加重平均 原油輸入 價格은 약 3.6 달러 하락할 것으로 전망.

- 原油輸入先의 多辺化 努力으로 사우디 및 쿠웨이트의 比重은 81年の 79.6%에서 82年에 61.8%로 하락.
- 사우디와 쿠웨이트 除外地域 (比重 38%)의 輸入價格이 平均 3달러 인하된다고 할 때, 加重平均 輸入價格 引下는 $\$4 \times 0.62 + \$3 \times 0.38 \approx \$3.6$

ii) 原油導入量은 그 간의 에너지 節約 및 石油代替 努力에 힘입어 80年 以來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83年에도 1.8億배럴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原油導入量: 81年 1.80億 배럴 (備蓄分 포함 1.83億 배럴)
→ 82年 1.78億 배럴
- 긴 眼目으로 石油消費 減縮政策이 계속되는 것을 前提할 때, 原油価가 引下되더라도 導入量(備蓄用除外)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假定.

韓國 原油輸入의 国別構成

	1981	1982
導入額 (億달러)	63.8	60.8
導入量 (億배럴)	1.83	1.78
国別構成 (%)		
사우디	58.2	50.3
쿠웨이트	21.4	11.5
이라크	8.0	13.3
인도네시아	1.6	8.8
에콰도르	3.2	5.3
리비아	0.6	3.4
브르네이	0	2.7
U A E	2.6	0.7
말레이시아	1.3	1.2
其他	3.1	2.8

〈資料〉 動力資源部

나. 世界景氣 回復의 加速化에 따른 輸出增大

- 油価가 30 달러로 인하될 경우 世界交易이 1年内 약 1% 追加增加한다고 할 때 韓國의 非中東地域 輸出은 2.5% 정도 증대될

것으로 期待됨.

- 過去 世界交易量 增加에 대한 韓國 輸出의 彈性値는 약 3.0에 달했으나, 輸出規模가 擴大되고 保護貿易傾向이 深化된 현재에는 2.5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
- 따라서 이로 인한 GNP 成長效果는 약 0.68%로 推定됨.

• 實質商品輸出增加 = $2.5\% \times \frac{197}{216}$ (非中東 輸出比重) = 2.28%

• 輸出에 대한 GNP의 彈性値 = 0.3% (輸出의 投資 輸入誘發效果등 포함)

• GNP 成長 = $2.28\% \times 0.3 = 0.68\%$

- 한편 油價 30달러로 引下時 輸出單價는 약 1% 下落要因이 發生할 것으로 豫상됨

• 都売物價는 1年内 약 1.5% 安定될 것이나, 美달러 強勢要因, 世界景氣好轉등을 감안할 때 輸出單價는 1年平均 1% 安定 展望 (83年当初展望 2% 上昇 → 1% 上昇)

- 83년의 非中東 商品輸出 實質增加率 展望은 10%이며, 따라서 經常收支 改善效果는 2.8億달러로 추정됨.

• 197億달러 [(1.1 + 2.5%) 1.01 - 1.1 · 1.02] = 2.8億달러

다. 中東建設 및 商品輸出의 減少

- 海外建設 外貨入金額의 감소에 따른 GNP 成長效果는 -0.22%로 추정됨.

• 油價引下에 따라 建設入金額 25億달러에서 23.2億달러로 감소 豫상

• 不變價格의 外貨入金額을 구하기 위해서는 財貨및 용역의 輸入單價로 換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輸入單價는 油價引下가 없는 경우 前年과 不變, 油價引下時 약 1.5% 하락할 전망임.

• 따라서 GNP 成長效果는 $(23.2\text{億달러} / (1 - 0.015) - 25\text{億달러}) / 662\text{億달러}$ (82年GNP) = -0.22%

- 對中東商品輸出 減少로 인한 GNP 成長效果는 -0.14%로 추정됨.

• 名目 商品輸出은 19億달러에서 17.8億달러로 감소.

• 油價引下 없는 경우 輸出單價 2% 上昇,

30달러로 引下時 1% 上昇假定.

• 實質商品輸出增加 : $(17.8\text{億달러} / (1 + 0.01) - 19\text{億달러} / (1 + 0.02)) / 216\text{億달러}$ (82年 輸出) = -0.46%

• 따라서 GNP 成長 = $-0.46\% \times 0.3 = -0.14\%$

라. 物價下落 效果

- 油價가 30달러로 引下되고 이것이 모두 消費者의 惠沢으로 간다면 都売物價는 약 2.5%의 引下요인이 있음.

• 都売物價 構成項目中 石油類製品의 직접적인 加重値는 13.6%이나, 産業用 電力 (加重値 4.1%) 등 中間財 投入分까지를 고려하면 약 22%를 접하고 있음.

• 그러나 中間財로 石油類의 投入이 적은 製品의 경우에는 油價引下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로 都売物價下落은 이보다 작을 것임.

- 消費者物價에는 직접적인 油類 加重價가 매우 작으나 燃料費, 交通費를 위시하여 전반적인 製品原價의 引下를 반영하여 1~1.5%의 下落要因이 있음.

- 만일 油類의 消費節約을 誘導하기 위하여 導入原油價 引下의 一部 혹은 全部를 関稅로 吸收한다고 하면 그 만큼 国内物價 下落 要因은 감소 혹은 消滅됨.

• 그러나 関稅의 증가로 通貨供給이 그만큼 줄거나, 関稅增加에 相應하게 다른 間接稅를 引下해 준다면 다소의 時差는 있더라도 앞에 전망한 物價下落은 대체로 실현될 것임.

- 또한 油價引下는 美달러의 1~2% 強勢(弱勢鈍化) 要因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라 우리 換率이 조정될 경우 国内物價 下落 要因은 0.4~0.8% 줄어들 것임.

- 그러나 한편으로 油價引下에 따른 物價下落은 인플레이心理를 拂拭하는데 도움이 되어 勤勞者 賃金, 金利 등 코스트의 안정에 寄与함으로써 時差를 두고 派生的인 物價安定을 초래할 것임.

- 이러한 諸要因을 감안할 때 30달러의 油價 引下는 1年内에 都売物價 1.5%, 消費者物價

□ 資 料 □

格 1%, 水準의 安定效果가 기대되며, 2年 이 되면 각각 2.5% 및 1.5~2.0%의 安定效果가 예상된다.

마. 國際收支 및 成長效果 綜合

- 앞서 提示한 油價引下의 國內 經濟 影響中 GNP成長效果를 綜合하면 油價 30달러로 引下時 GNP增加는 年間 約 0.32%로 추정될.

- 世界景氣 好轉으로 인한 輸出增加 +0.68%
- 海外建設 外貨入金 減少 -0.22%
- 對中東 商品輸出 減少 -0.14%

- 한편 國際收支效果를 綜合하면 年間 5.6億 달러의 經常收支 改善效果를 기대할 수 있음.

- 原油輸入 輕減 + 6.5億달러
- 世界景氣 好轉으로 인한 輸出增加 + 2.8億달러
- 海外建設 外貨入金 減少 - 1.8億달러
- 對中東 商品輸出 減少 - 1.2億달러
- 國內成長 加速化(약 0.32%)에 따른 輸入誘發 - 0.7億달러

※ { 非原油輸入의 GNP彈性值 = 1.2
 따라서 輸入誘發 = 182億달러(82年 非原油輸入)
 $\times 0.32\% \times 1.2 = 0.7$ 億달러

- 國際金利의 하락으로 인한 外債利子負擔의 輕減은 油價引下後 1年內에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고려하지 않음.

- 油價引下는 短期的으로는 國際 金融市場의 不確實性 增大, 특히 開途國의 借入 條件惡化를 초래하여 加算金利등 實際借入 κόσ츛上昇 予想.

- 위의 전망은 油價引下에 따른 인플레이 하락 및 약간의 景氣好轉에 相應하게 通貨供給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前提로 한 것임.

- 만일 通貨供給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物價安定效果는 적어지는 반면 GNP成長 效果는 다소 커질 것임.

- 위에 提示된 GNP成長 및 國際收支 效果는 油價引下後 1年間에 期待되는 效果이므로 83年中에 나타나는 效果는 이보다 적을 것임. 油價引下가 2/4分期初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83年中 期待效果는 다음과 같음.

- 消費者 및 都売物價安定 0.8~1.3%
- GNP成長 0.22%
- 經常收支 改善 4.3億달러

3. 國內 石油化學工業에 대한 影響

가. 國內 石油化學工業의 最近 動向

- 國內 石油化學工業은 近年에 극심한 經營難을 겪어오고 있음.

- 1980年 以來 國內需要의 급격한 沈滯 및 大規模施設擴張(1979年末 여천단지 完工)에 따른 需給不均衡
- 國際高金利 趨勢에 따른 利子負擔 加重
- 外國低價 製品 流入등

- 最近에는 經營狀態가 약간 개선되어 가고 있음.

- 82年 3月 國內 나프타價格의 引下 및 國際金利 下落
- 業界 全体로 보아 80年 950億, 81年 800億 赤字→82年 350億 赤字 予想

- 그러나 國內 石油化學工業은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 低價의 天然가스를 原料로하는 產油國들의 石油化學工業 進出.
- 1社 1品目 生産体制등의 構造의 脆弱點

- 國內 나프타 價格現況 및 展望

- 石油化學工業 生産原價의 70~80% 内外를 차지하는 國內 나프타價格은 工業用 原料라는 特性을 감안하여 82年 3月 國際價格(現物市場 價格)과 비슷한 수준으로 策定, 유지되어 달러 基準으로는 점차 價格이 하락하여 왔음.

- 따라서 最近 國內價格이 오히려 國際價格을 下廻하게 되어 國內 나프타 價格을 약간 上向調整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의 原油導入價 引下 可能性을 감안하여 조정하지 않고 있음.

나. 國際原油價 下落과 國內石油化學工業

- 公示價格 引下의 경우

- 原油公示價格이 引下될 경우에는 国内石油製品價格들도 引下될 것임.
- 그러나 基本的으로 대부분의 原油導入國들이 이러한 價格變動에 같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国内石油化学工業이 다른 나라와 다른 特別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임.
- 다만 低價의 天然가스를 原料로 하는 石油化学製品의 流入 可能性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国内石油化学工業의 稼動率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国内 他工業들에 비하여 石油化学工業은 價格引下로 더욱 큰 需要 增大를 기대할 수 있어 經營好轉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現物市場 價格만 下落할 경우

- 나프타 價格은 현재 政策의으로 國際市場(現物市場)價格에 맞추어 책정하여 주고 있으므로, 現物市場에서의 나프타價格의 下落은 国内 나프타 價格의 引上 要因을 없애주고, 오히려 引下要因을 발생시킬 것임.
- 이때 国内 나프타 價格을 國際市場(現物市場)價格과 같은 수준으로 引下하여 준다고 하면 油價引下는 장기적으로 石油化学業界에 도움이 될 것임.
- 만일 精油業界 収益性 維持 必要性 때문에 나프타價格 引下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外國의 低價製品流入 增大로 国内石油化学業界는 단기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IV. 油價引下에 대한 国内政策対応

1. 에너지 政策의 合理的 推進

가. 石油依存度 減縮 및 에너지 消費節約努力 持續

- 長期的으로 石油價의 安定을 樂觀할 수 없음.
- 油價가 \$25/b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先進國의 石油代替 및 節約努力은 상당히 약화될 전망.

- 따라서 脫石油政策을 持續的으로 유지해야 할 것임.

에너지 利用構造의 变化展望

(%)

	1982	1986	1991	2001
石 油	57.8	46.2	43.0	32.2
石 炭	33.8	38.5	36.4	38.6
原 子 力	2.0	10.5	13.1	21.0
其 他	6.4	4.8	7.5	8.2
(L N G)			(2.7)	(4.1)

(資料) 動力資源部

- 發電源의 原子力 有煙炭 中心으로의 代替 計劃 계속 推進(發電源의 石油依存度: 82年 69.7%→91年 16.9%)
- 시멘트産業 등 에너지 多消費産業의 有煙炭에로의 代替擴大.
- 熱損失率이 높은 中小企業과 既存住宅의 에너지 效率性 提高.
- 持續的인 消費節約 努力을 誘導하기 위하여 油價引下分의 일부를 關稅賦課로 吸收하는 方案檢討.
- 第3의 油價波動을 防止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先進國에서도 검토중이며, 이것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主要原油輸入國들의 共同步調 必要.
- 油價引下分의 50%를 關稅로 賦課 한다고 할 때, 年間 稅收增大는 약 2,400億원에 달함.
- 同 關稅分의 一部를 代替에너지開發, 其他의 石油代替 및 에너지利用 合理化를 위한 投資支援에 利用.
- 國際油價가 引上될 경우 石油消費에 대한 稅負擔을 輕減하여 国内油價의 安定化 効果도 期待可能.

나. 原油導入体制의 改善

- 石油市場展望에 근거하여 石油의 安定確保와 低價導入을 동시에 追求할 수 있는 導入体制 摸索.
- 불리한 長期契約을 低價의 現物市場 導入으로 전환하여 長期契約과 現物市場 導入을 적절히 混合.

□ 資 料 □

- 現物市場 導入比率 : 81年 2.6%, 82年 4.6%
- 国内 精油会社로 하여금 原油市場의 機敏한 情報体制을 바탕으로 原油導入 交涉能力을 제고하도록 誘導.
- 对産油国 關係의 堅実化 및 原油導入先의 多辺化 原油導入 中東依存度 : 81年 88% → 82年 77%

다. 에너지 價格体系의 合理化 및 備蓄擴大

- 油種間 價格構造의 개선으로 需給 構造의 不均衡 是正
- 電力料金 및 石炭價格体系를 개선하여 種別 需給管理 적정화.
- 國際石油市場動向을 감안한 原油 및 石油製品의 適正備蓄 推進

2. 建設輸出의 持續的 伸張摸索

- 油價引下에 따른 産油國의 開發計劃縮小에 対処하여 建設輸出을 維持,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建設技術向上, 經營 및 受注管理의 合理化, 政府支援의 효율화 등이 요구됨.

가. 技術開發 및 經營合理化 努力의 強化

- 單純 土木·建築工事에서 機械, 電氣, 通信 등 Plantengineering으로 전환에 필요한 技術開發.
- Plant engineering分野에서 先進國 企業과의 consortium 結성으로 合作進出 확대.

海外建設의 工種別 比重

(%)

	1966~76	77~79	80~81
土 木	64.0	29.2	40.0
建 築	21.3	49.9	52.2
機械, 電氣, 通信等	14.7	20.9	7.8

(資料) 建設部

- 都市建設, 造景 등 建設工事以後의 維持, 管理에 参与.
- 經營合理化 및 財務構造의 개선
 - 機構縮小, 職業訓練, 資材使用의 合理化

및 勞使 管理의 개선

- 財務構造의 健全화로 구분별한 受注止揚.

나. 受注增大을 위한 政府支援의 効率化

- 技術 및 人力開發支援

- 技術開發 補助金支援 擴大
- 技能工養成 및 技術支援 教育 實施
- 海外 進出業체는 業種別로 專門化하여 選別支援

- 金融 및 稅制支援

- 優良企業, 新技術開發 및 新市場開拓企業 爲主의 지원으로 企業體質強化(海外建設 振興基金活用)
- 有望新市場 開拓初期의 延拂輸出支援 및 위험에 대한 損失補填.

- 市場 多辺化 努力의 支援

- 還太平洋 共同體 構想에 따라 東南亞, 中南美, 濠洲 등의 市場開拓
- 資原保有國 爲主로 아프리카 市場開拓

다. 海外建設 情報 및 受注管理의 強化

- 過當競爭防止 등을 통한 建設輸出의 收益性 提高

- 海外 建設協會 仲裁를 통한 조정으로 安配式調整의 弊端을 是正.
- 專門家의 事前審査를 통해 受注對象工事의 부실을 방지.
- 品質改善을 통해 國産機資材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外貨稼得率 向上.

- 海外建設 및 國際原資材市場 情報体制의 確立

- 海外公館, 海外建設協會, 韓國海外建設 株式會社(KOCC), 海外技術公社(KCI), KOTRA 등을 통한 多角的 情報網 構築

- 油價引下에 따른 海外建設 与件惡化에 대한 效率의 対処

- 建設代金を 原油로 支給받는 경우의 對策 樹立
- 土木工事 등에서 現地法人과의 合作試圖
- 先受金比率의 인하, 代金決濟遲延 등에 따른 建設會社의 資金圧迫을 緩和하기 위한 金融支援 擴大. *